

이임사

존경하는 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4대 회장 문승태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 역임했던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직을 작년 12월 31일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학회 임원진 및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짧은 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학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지난 2년 간 양적 및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총 4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021년 추계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전면 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진로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순천만잡월드 등 다양한 진로교육 유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학회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진로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재직자, 실직자의 성인 진로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진로교육의 핵심단체로서 앞으로의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성장에는 학회 임원진 및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2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주셨던 임원진분들과 더불어 지난 4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진로교육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해주신 공주대학교 어윤경 교수님, 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해주신 정진철 서울대학교 교수님, 학회의 운영을 담당해주었던 서울대학교 양인준, 서예린 박사수료생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한국진로교육학회 제3차 운영위원회 및 고문단 회의 결과 제15대 회장으로 한세대 학교 김희수 교수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김희수 교수님은 현재 한국상담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한국진로교육학회에서는 사무국장 및 편집위원장직을 수행하셨기에 향후 한국진로교육학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직을 수행하실 김희수 교수님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간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5대 회장단의 성공적인 학회 업무 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회원님들과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4대 회장 문 승 태 드림